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24, 야고보서 3:1-12.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4회차
야고보서 3:1-12

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의 다음 부분인 야고보서 3:1부터 4:12까지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습대로 3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의 조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하는 정욕과의 투쟁에 관한 논증과 권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섹션은 도서 조사에서 나온 책의 분류를
반영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 3:1부터 4:12까지의 이 구절은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학문의 합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꽤 분명히 하나의 단위입니다.

하지만 이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James가 이 단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구성했는지는 표면적으로 식별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아주
민감하게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더 분명한 관찰부터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분명한 관찰은 이 자료 내에 4개의 단위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3:1부터 12까지는 다루기 힘든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18장까지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우리는 회개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의 전체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4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다루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3:1부터 12까지는 무질서한 말입니다.

3:13부터 18까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4:1부터 10까지, 제어할 수 없는 욕망. 그리고 4:11부터 12절까지 그는 다시 난폭한 말로 돌아옵니다.

비록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그는 제어할 수 없는 혀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하여 제어되지 않는 말을 다루었습니다. 반면에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그는 악한 말 등의 용어로 제어되지 않는 말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관찰입니다.

그게 더 분명해요. 그러나 두 번째 관찰은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단원 1, 3, 4, 즉 3:1부터 12까지, 4:1부터 10까지, 4:11부터 12까지가 특정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 구체적인 관행. 언어, 전쟁, 공동체 내의 싸움, 이런 것들이요.

반면에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본질적인 성격의 문제를 실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더 일반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함과 악함, 악함과 의로움 모두의 일반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상황이나 삶의 영역에서의 표현, 특정한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연설의 관점에서는 3:1부터 12까지, 4:11부터 12까지, 그리고 4장, 1부터 10절까지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전쟁과 다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또한에서, 이것이 세 번째 관찰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야고보는 3:13부터 18까지 다시 지혜의 문제를 소개하고 참 지혜와 거짓 지혜, 위에 있는 지혜와 아래에서 오는 지혜를 대조합니다. 이는 3:1부터 12, 4의 대조되는 설명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4장 11부터 12절까지에서 그는 그릇된 길, 악한 길, 옳은 길에 반대되는 부당한 길을 제시하고, 모든 면에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따른 결과인 세상의 지혜를 다시 암시합니다. 이기적인 야망과 질투를 포함한 사악한 행위는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제어할 수 없는 말, 움브레토 혀, 제어할 수 없는 욕망, 전쟁, 싸움의 의미로 표현될 수 있으며, 다시 제어할 수 없는 말, 악한 말의 의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4:11부터 12. 반면에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제시된 하늘의 지혜는 그 구절에 따라 선한 삶, 선행, 특히 온유와 겸손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4장에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5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며, 특히 겸손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3:13부터 18까지의 경우,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그가 행하지 말아야 할 일로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특정한 행동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말, 제어할 수 없는 욕망, 그리고 다시 제어할 수 없는 말, 또는 하늘의 지혜의 경우 4장 5절부터 10절까지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원인이 됩니다. 이 구절의 중심은 하늘의 지혜와 대조되는 땅의 지혜를 제시하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이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두 가지 유형의 지혜는 땅의 지혜의 경우에는 제어되지 않는 말, 제어할 수 없는 욕망, 제어할 수 없는 말의 원인을 형성하고, 하늘의 지혜의 경우에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형성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말했듯이 천상의 지혜의 특정화의 효과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는 구조적 관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한,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질문, 문제 해결 종류의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문제는 세상의 지혜와 그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하늘의 지혜와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일반화-구체화와 대조를 통해 인과관계-입증을 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특정한 효과, 즉 무질서한 말에서 시작하여 일반적인 원인, 즉 세상의 지혜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루기 힘든 말은 세상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단순한 말보다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특정에서 일반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3:1-10에 묘사된 제어하기 힘든 말은 세상 지혜의 일반적인 원인의 특별한 결과이며, 이는 또한 4:1-10 다음에 나오는 자료에 있는 제어하기 어려운 욕망과 제어하기 어려운 말하기의 특별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3:14-16에 있는 땅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와 대조됩니다. 하늘의 지혜는 4:5-10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특별한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이제 세부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이 분석에는 세그먼트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분석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세그먼트 조사의 기본 단위와 하위 단위는 세부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즉 구절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주요 단위인 3:1-12에 나오는 신부의 혀에 대한 무질서한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살펴보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 몸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니라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면 우리는 그 몸 전체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배들도 보십시오. 비록 그 배들이 그렇게 크고 강풍에 이끌려도 아주 작은 방향타에 의해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혀는 작은 지체라 큰 것을 자랑합니다.

작은 불 하나에 얼마나 큰 숲이 타오르는지. 그리고 혀는 불이다. 혀는 우리 지체 가운데서 불의한 세상이라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윤회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각종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또 사람이 길들였으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나니 곧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내 형제들이여,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구멍에서 담수와 기수에서 샘이 솟아오르나요?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으며 포도나무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소금물이 신선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 보면 실제로 여기서 3장

1절과 3장 1절 사이에 주요한 중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권면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권면입니다.

그는 부정적인 권고인 권고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두 가지 숫자를 모두 포함하는 교사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쩌면 그는 함부로 선생이 되겠다는 결정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는 논리적 관찰 또는 범주입니다.

많은 사람과 수와 방식으로 성급하게 교사가 되지 마십시오. 자, 저는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교사와 교사의 직분은 큰 일이었다는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특히 야고보가 잘 알고 있던 유대교 기독교 에서 교사와 교사의 직분은 참으로 매우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분과 역할을 구하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야고보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이제 해석의 역사에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권고가 동기를 포함한다고 선언해 왔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제임스가 단순히 그것이 제공하는 개인적인 명성과 개인적인 추종자 때문에 이 직책이나 기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적절한 동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2절부터 12절까지는 동기의 문제가 고려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경적 증언과 역사적 배경에서 그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문맥에서 나오는 증거가 해석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12절까지는 동기의 문제가 여기서 고려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특히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실증을 통해 드러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요. 하지만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것이 부차적인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면, 그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말하는 것은 그가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에 관해 말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너희 중에 이해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이느냐? 그의 선한 삶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나타내게 하소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이 있고 특별히 다툼이 없는 야심이 너희 마음에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속이지 말라. 1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행실이 무질서하게 되리라. 즉, 이기적인 야망이 교직에 들어가려는 동기이자 잘못된 동기라는 암시는 여기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맥락에서 암시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고 거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일차적인 방법이 아닌 이차적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맥락에 관해 이야기해보면, 가르치는 일에 관련된 두 가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혀를 사용하는 일이 관련됩니다. 교사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지혜도 포함됩니다.

특히 고대 세계에서 가르침은 단지 말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혀의 사용을 논의하고 지혜를 논의하기 위해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구절에서 교사에 관한 이 권고를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그가 이 권고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입증된다. 그는 3장 1절에서 입증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엄중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요 근거입니다. 이제 RSV가 이것을 번역하더라도 우리는 더 엄격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어로 읽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사는 교사이기 때문에 더 높고 더 높은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 것처럼 더 엄격한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어에서는 meizon이라고 읽습니다. 크리마(krima), 더 큰 판단, 더 큰 판단. 즉, 교사인 사람들은 더 큰 판단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이 더 큰 심판은 여기에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 판단에 대한 책임이 커집니다.

우리는 심판이나 정죄에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직업이 허의 필요한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쉽게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는 계속해서 허가 도덕적으로 매우 위험한 도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더 큰 심판에는 심판의 정도도 포함되며, 다른 심판보다 더 가혹한 정죄와 더 가혹한 형벌을 받기 쉽습니다.

이제 더 가혹한 형벌, 더 큰 정죄, 더 가혹한 형벌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그가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보상과 심판에 대한 단순한 이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은 극한의 행복을 의미하고, 극한의 보상을 의미하거나, 지옥을 의미하며, 지옥에 보내진다고 해도 간신히 극한의 고통, 극한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실제로 상과 형벌의 정도가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예로 들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풀어서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늘의 왕국. 그러나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이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 5절, 실제로는 4절에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리고 다시 20장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의 대인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느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태복음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일 뿐이며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보상의 정도에 대해 나타냅니다. 즉, 왕국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사람들 중 왕국에서 더 큰 사람도 있고 왕국에서 덜 들어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어느 정도의 처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11:22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 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는 하데스로 끌려 내려가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서 행한 모든 기적이 소돔에서 이루어졌더라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므로 마지막에 심판의 정죄를 받은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정죄를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습니다. 허용 정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거나 더 큰 심판, 더 가혹한 심판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 교사들이 심판 날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다른 교사들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날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선생은 선생이 아닌 다른 죄인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나는 작가가 교사들 중에 자신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르치는 우리가 다시 1인칭 복수의 굴절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여러분이나 가르치는 이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가르치는 우리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다소 심각한 진술의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그의 권고가 가르치는 직분이나 기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는 누구든지 선생이 되지 말며, 누구든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교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그것이 정죄를 보장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가르치는 직위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야고보가 자신을 성숙하거나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 몸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니라.

이것은 야고보가 자신을 성숙하거나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그는 교직에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기준, 즉 성숙함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온몸을 굴레까지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남자.

그만큼 완벽함과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경고가 대부분의,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저에게, 그리고 이 비디오를 시청할 대부분의 여러분에게 갖는 의미와 무게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비디오를 보는 여러분 중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전임 기독교 봉사(종사)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대부분, 혹은 많은 분들이 목회자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서에 따르면 사목 활동의 핵심은 가르치는 일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 내 사역의 은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때, 여러분은 꽤 확신합니다. 4:11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은사로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되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이 당신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RSV의 구두점에 의해 제안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및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별개의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사와 교사가 함께 일하는 것, 목회 활동의 핵심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상담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역에 해당됩니다. 모든 사역은 말의 사용을 포함하거나 이에 의존합니다. 덧붙여서, 이것은 단순히 구두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구두로 하는 말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여기서도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점점 더 컴퓨터에 단어를 입력하여 월드와이드 웹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설은 단순히 구두 의사소통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언어와 관련이 있고, 언어적 의사소통, 즉 서면과 구두 모두에서 용어의 더 넓은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적용 범위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에 대한 추가 입증에 착수합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가르치는 자가 더 엄하게 심판을 받으리라 하신 1b절의 말씀을 확증하되 너희 중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권면을 지지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2절의 추가 입증, 이 더 큰 심판의 이유, 따라서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할 추가 이유는 3장 2절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3:2에 일반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교사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포함 범위에 유의하세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 몸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2절부터 그는 더 이상 교사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교사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3장 1절에 비추어 3장 2절부터 12절까지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 3장 2절부터

12절까지에서 말하는 것은 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사에 대한 야고보의 일반적인 관심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에 대한 제임스의 일반적인 관심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제 실제로 2절에는 특정화가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주장, 즉 실수에 대한 일반적인 민감성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혀로 실수를 저지르는 특별한 민감성으로 넘어갑니다.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만이 혀를 실수하지 않고 온 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우리 모두가 많은 실수를 한다고 말할 때, 실제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졌습니다.

단어는 *ptaio* 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면에서 넘어집니다. 실제로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2.10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한 점에서는 그 모든 것에 유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 10절과 다른 신약성경 구절에서 사용된, 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실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크든 작든 참으로 죄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우리 모두가 넘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RSV 번역에서는 우리 모두가 많은 실수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헬라어 단어는 *ptaio* 이다.

부사 대격입니다. 우리 모두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히 넘어지는 유형이나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어긋납니다. 자, 여기서 다시 굴절에 주목하세요. James는 계속해서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는 많이 넘어졌습니다. 이는 참으로 자랑하는 일에 대해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그는 3:13부터 18까지 그가 무엇을 말할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우리의 지위가 지혜로운 자는 그 선한 생활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사를 나타낼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속이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그는 여기서 말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는 자랑과 같은 개념 전체를 다시 한번 언급할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는 4:16에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성숙 또는 완전함(2b절), 그리고 거기에는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인 텔레오스(teleos)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실족하고 말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사람이요. 성숙함이나 완전함은 인간의 도덕적 연약함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자비와 도움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4.6인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10,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가 3:2에서 우리 모두가 자주 넘어진다고 말했을 때 이것이 3.1에 비추어 보면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결코 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여기 3:2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특정 영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삶의 한 영역, 즉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인 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혀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여러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됩니다. 혀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그 원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가 말하려는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그가 여기서 특히 6절부터 12절까지에서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것이다.

그는 혀가 삶에서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차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특히 6절부터 12절까지는 인생에서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내가 말했듯이 혀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어려움과 중요성은 혀의 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요점은 혀가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혀는 개인의 도덕적 삶 전체를 표현하고 결정합니다.

혀는 그 사람의 전체 도덕적 삶, 그 사람의 전체 행동을 표현하고 결정합니다. 혀를 제어하면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는 3절과 4절에서 이것을 입증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주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면 우리는 그 온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를 보십시오. 비록 그 배들이 너무나 크고 강풍에 의해 물리지만, 조종사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아주 작은 방향타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혀는 작은 지체라 큰 것을 자랑합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불을 피우는지,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우는지.

말과 배의 경험은 혀를 통제함으로써 우리의 도덕적 삶 전체와 행동의 모든 측면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혀를 제어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혀를 제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필요한 혀의 통제는 완벽함을 요구하며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세 번째 요점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혀 제어는 완벽함을 요구하며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삶이 순환하는 완전한 사람만이 이전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중심으로 일치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온전함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1장 4절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묘사한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의 생활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섞임이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갖고, 온전한 확신 가운데 살아간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허를 제어하는 것은 그러한 완전함을 요구하며 그러한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온전한 사람만이 허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완전함이 필수적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이 상황, 즉 허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완벽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발달된 영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1:4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은 어떤 불순한 충동이나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모든 충동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구절에는 포괄적인 일관성으로서의 완벽함의 두 가지 차원이 결합되어 있으며, 혼합되지 않고 상황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적절성. 이제 그가 2절에서 직설법으로 말한 것에는 실제로 두 가지 암시적인 권고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설법에 암시적인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자 곧 허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만 선생이 되게 하고, 허를 제어할 수 있음을 확신한 후에만 선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를 통제하며, 허를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고는 완전함, 이런 완전함, 이런 성숙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3절부터 12절까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2절의 실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는 실제로 3절부터 12절, 2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또한 3절부터 2절까지에서 자신이 하는 주장을 확장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여기 3절부터 5절까지에서 혀의 큰 의미로 시작합니다. 그가 말, 배, 불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여기서는 매우 생생한 언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가 말에 관해 말한 내용이 주요 요점을 확립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에 관해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주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면 그 온 몸을 다스릴 것이요.

여기에서 그는 혀를 다스리는 것이 몸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요점, 즉 근본적인 요점을 확립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부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배에 가면 그 점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에서 배들에 대해 읽습니다. 또한 배들을 보십시오. 그 배들이 비록 크고 강풍에 밀려가지만 아주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혀의 작고 걸보기에 하찮은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큰 배만 보면 방향타가 배를 조종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배의 방향타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물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의 위대함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다.

그래서 혀는 작고 그 사람의 신체생활 전체에 비하면 하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는 걸모습과 현실의 대비가 강조된다. 강한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대형 선박의 경우처럼 다른 것들도 행동에 있어서 더 결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행동에 있어 더 결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해 참고하면 특히 당시 선박의 방향타는 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향타와 혀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불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그는 혀의 기만적으로 파괴적인 힘이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혀의 작은 것과 혀의 큰 효과 사이의 대조를 강조합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5절에서 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혀는 작은 지체라 큰 일을 자랑하느니라 작은 불이 삼림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가 불에 대해 말한 것, 즉 혀를 불에 비유한 것은 인간의 전체 도덕적 삶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혀의 중요성에 대해 그가 말한 것을 실제로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실제로 5절에서 그가 제안하는 것은 혀가 그토록 작은 것이지만 결정적이며, 사람의 도덕적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 또는 적어도 하나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파괴력. 개인의 전체 도덕적 삶에 대한 힘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의 파괴적이고 잠재적인 파괴 능력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혀는 작은 지체라도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괴는 실제로 그 사람 자신의 성격의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6절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있는 불의한 세상이라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윤회를 불사르는 것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진술이 혀의 파괴적인 특성에 대한 첫 번째 언급 바로 앞에 있음을 주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중심주의, 자급자족, 파괴의 힘에 대한 기쁨입니다. 혀는 큰 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자랑하는 것은 자랑의 개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14절에서 그랬듯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짓되게 하십시오. . 그러므로 혀를 자랑한다는 이 개념은 혀의 힘, 즉 혀의 파괴적인 힘이 자기중심주의, 자만심, 심지어는 파괴의 힘을 기뻐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혀의 힘의 원천이자 궁극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혀의 특성에 대한 분석에 관해서 우리는 여기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세 가지, 여섯 가지 그리고 다음을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혀의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셋, 여섯, 열두

장에서 혀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의 큰 어려움에 대해 논하게 합니다. 그는 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왔고, 지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언급했어야 했던 일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면 그 온 몸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투지나 고삐를 묶는 말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실제로 1:26 의 언어에서 포착됩니다 .

누구든지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면 여기서 야고보는 그가 1장 6절에 있는 혀에 관한 매우 일반적이고 간단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이것은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1장의 이러한 진술을 특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그는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은 특성이 포함됩니다. 즉, 혀는 불의한 지체요, 불의한 세상이라, 곧 우리 지체 중에 불의한 세상이라. 온몸을 더럽힌다, 온 몸을 더럽힌다. 자, 이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혀를 불의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1:27에서 world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그는 4장 4절에서 다시 세상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불의한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혀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총동의 총체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의미입니다. 인류에게서 발견되는 사악한 반신 총동. 야고보서의 세계는 신성한 통제가 없는 현 시대의 구조이며, 신성한 통제가 없는 현 시대의 구조에서 안전을 찾고 배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허가 우리 존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충동, 즉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불의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경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는 곳은 허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이 인과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몸을 더럽히게 된다.

물론 그분은 유대인의 의미에서 육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살과 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육체적 존재 안에 있는 전인체를 의미합니다. 허는 사람의 도덕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말 바로 뒤에 숨어서 말에서 기회를 찾아 말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사악한 영향력의 기회가 되는 종류의 악한 충동은 암처럼 퍼져서 사람 전체를 삼키게 됩니다.

이는 인격의 파괴와 붕괴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그것은 우리의 성격 전체를 소비합니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그것이 또한 그러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물론 인과관계, 온몸을 더럽히는 일, 자연의 순환을 불태우는 일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인과관계와 일반화가 모두 포함됩니다. 몸 전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몸 밖에서도 파괴적인 작용을 하여 자연의 순환, 자연의 순환, 일반화에 불을 붙인다. 이제 그가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특히 그가 말하려는 내용에 기초하여, 특히 9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다시 4장, 4장의 시작 부분에서 이 점을 집어들 때 말입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4장 끝부분 11절부터 12절까지에서 그가 여기서 자연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의 순환에 불을 붙이는 것은 허가 우리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도덕성을 파괴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다른 사람과 교회 전체와 사회 전체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합니다.

그는 불의 이미지로 돌아가서 자연의 순환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완전한 파괴와 파멸을 강조하기 위해 불 이미지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불행은 주로 이곳의 허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야고보와만 관련이 없는 혀에 대한 견해입니다. 앞서 우리가 1장 끝부분을 보면 혀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혀의 의미와 혀의 힘에 대해 말씀하셨고, 따라서 말과 혀의 말에 조심함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 이런 일이 있지만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벤 시라크(Ben Sirach)와 집회서(Ecclesiasticus)에는 많은 사람이 칼날에 쓰러졌지만 혀에 쓰러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글쎄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보호받고, 그 독을 통과하지도 않았으며, 그녀의 묶임에 묶여 있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우리 지체들 사이에 있는 혀와 불의한 세상일 뿐만 아니라 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충동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세상의 축소판일 뿐만 아니라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는 초월적인 악의 능력이 혀에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지옥불, 문자 그대로 게헨나에 의해 불붙는 것, 게헨나에 의해 불붙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은 고통의 장소로 포함되며, 실제로 악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느니라. 이것이 제가 악마적 성격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야고보는 여기서 매우 생생한 언어를 사용하여 매우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옥의 불꽃에 의해 불붙는다는 것, 지옥의 불꽃에 의해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출처를 가리킨다. 그 근원은 초월적이며 사탄적이며 또한 그 끝인 게헨나를 고통의 장소, 투옥의 장소로 가리킨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지옥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에서 그는 혀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 모든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또 사람이 길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배타적인 범위를 알아차리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혀, 즉 치명적인 독이 가득한 불안한 악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서는 허와 동물의 대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허의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는 범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이 훈련을 받고 있고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가 훈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타락 이전의 경우가 아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고 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실제로 아이러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외부의 큰 생물은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 내부의 작은 기관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외부의 큰 생물은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 내부의 작은 기관은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배타적인 범위의 인간은 허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가 인간이 허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우리는 암묵적인 권고, 즉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굶주린 짐승을 통제하는 데 어떻게든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연히도 여기에는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이 고대 성경 작가가 말하는 진리를 실제로 강화하고 확장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있습니다. 고대 성경 작가는 창조물을 통제하는 인간의 능력을 길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동물을 길들이는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인간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James의 주장을 그에게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지 주목하십시오.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실제로 원자를 쪼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제임스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창조의 모든 측면을 우리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들이기와 자연의 과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입 안에 있는 2인치짜리 패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유주의와 현대성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외부 세력에 대한 인간의 통제는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불안한 악이라고 말합니다. 불안한 악.

여기서 단어는 akatasxeton 입니다. 이것은 제임스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와 대조되고 완전함과 대조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통일성, 일관성, 전체성의 반대입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악.

불안한 악. 그는 3분 16절에서 명사를 사용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질서와 온갖 악한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혐의 마귀적인 성격은 결코 선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동시에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완전하고 안정적이며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합니다.

제임스에게 있어서 악의 주된 특징은 불안정성과 불일치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반대인 무질서의 통치로 이어진다. 이제 그는 혐에도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치명적이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8c절에 보면 독이 가득합니다. 매우 독성이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는 죽음의 신학적 범주와 그 안에 함축된 모든 풍요로움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배치의 중요성에 주목하세요. 그 치명적인 힘은 그 불일치, 안절부절 못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적이다. 여기에서 그는 불안에 대한 개념을 집어 들고 9절부터 12절까지 그것을 발전시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내 형제들이여,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호소함으로써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같은 구멍에서 담수와 기수에서 샘이 솟아오르나요?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으며 포도나무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소금물이 신선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설명에서 정량적 선택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작가가 혐의 이러한 다양한 특성에 부여하는 상대적인 공간의 양입니다.

그는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는 혐의 이러한 불일치와 모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네 구절을 제시합니다.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이며,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축복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예배식 축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아마도 분노, 분노, 파괴적인 말과 관련된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두 가지,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말,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말, 4:11~10~12.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실제로 저주에 대한 반대 주장이지만 아마도 특히 4장 11절과 12절에 근거하여 악한 말이나 파괴적인 말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말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 환경에서 전례적 축복을 합니다. 다시 그는 예배의 배경이라는 이 개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것, 예배에서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사이의 불일치라는 실제 문제를 지적합니다. 2장 2절부터 2절까지의 시나리오에서 그가 그랬듯이요. 4. 인격인 하나님을 축복하는 척할 수 없고, 그

인격의 대표자인 인간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는 창세기 이야기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양과 염소, 다른 인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이듯이, 다른 인간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입니다.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거나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 한 것이거나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인간에게 하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례 축복의 맥락, 실제로는 예배 환경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해설 설교자 중 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의 책을 구하거나 그의 녹음을 들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세대 전의 위대한 강해 설교자 중 한 사람은 폴 리스(Paul Rees, REES)였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월드비전 인터내셔널(World Vision International)의 부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및 찰스 콜슨(Charles Colson)과도 긴밀히 협력했으며, 특히 콜슨의 교도소 사역 말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미니애폴리스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였으며 훌륭한 강해 설교자였습니다.

거룩한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 직후에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축도 후 10분 동안 예배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에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일종의 험담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로 이동하여 9절의 말의 대상과 말의 근원 사이의 모순, 즉 10절부터 12절의 말의 근원에 관한 모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내 형제들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요점은 축복과 저주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점은 이것이 자연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하는 것과 대조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구멍에서 담수와 기수에서 샘이 솟아오르나요?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으며 포도나무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소금물이 신선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이는 자연에 어긋나며, 따라서 왜곡되고 기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의 기괴함에 주목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비추어 자연을 읽을 때 일관성은 우주의 구조 자체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 특히 자연의 일관성 속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달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와 자연계의 하나님의 계시 사이에는 일관성이 있으며, 물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특별계시 사이에는 특별계시와 자연계시 사이의 신학적 범주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자연 계시에 대한 암묵적인 호소와 관련하여 내 판단으로는 성경에 따라 우리가 자연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할 경우에만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물론 제임스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도 바로 이것이다. 이제 3:12b는 그가 여기서 3:12b라고 말할 때 실제로 3:13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한 번의 연설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제안합니다. 한 번의 연설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가 말했듯이, 소금물은 더 이상 신선한 물을 생산할 수 없으며, 자연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것을 생산하는 것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13절로 전환되어 이제 그는 허에서 허 뒤에 있는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돌아올 때 3시 13분부터 3시 18분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잠시 멈추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4회차

야고보서 3:1-12
입니다.